

안전은 기업의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안세천 공장장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전당과 전분당 등을 생산하고 있는 식품소재 제조사업장이다. 업종 특성상 폭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전도, 협착, 추락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이곳은 지난 2007년까지 매년 사고가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망사고, 협착사고, 추락사고, 지게차 사고 등 사고유형도 다양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무재해 5배수 기록을 달성한 사업장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KOSHA18001 인증, PSM 인증 등 안전시스템 구축과 교육체계의 확립, 안전관리자의 열정,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임직원들의 관심 어린 참여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곳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안세천 공장장의 안전경영이 큰 몫을 했다.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안세천 공장장을 만나봤다.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과감한 안전투자로 무재해 5배수 이끌어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 들어서면 '안전의식 Number One! 우리 공장 무재해!' 라는 큼지막한 표어를 볼 수 있다. 이 표어에서 이곳의 안전경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짐작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이후 원가 및 품질을 생각한다는 것이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의 철두철미한 경영방침이다.

안세천 공장장은 "안전은 예방 가능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고의 유형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위험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직원 모두가 그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살핀다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 아래, 그는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현장에 나가서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을 세심히 챙길 정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설비에 대한 보완 투자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설비에



안전난간 등의 위험방지 시설물들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설비의 경우 안전 개념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교체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설비의 자동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CJ 합병으로 더욱 탄탄해진 안전문화

이곳은 예전에 ‘신동방CP’라는 단독법인이었다가 지난 2011년 CJ제일제당으로 합병됐다. 합병 이후 이곳은 선진 사업장으로서의 기반이 보다 확고해졌다.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강화된 것. 이러한 상황 속에 이곳은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직원들에 대한 안전의식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취약점수대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날그날 현장 패트roller를 시행하고, 미흡한 점과 잘된 점 등을 담은 ‘일일안전리포트’를 모든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꾸준히 유지해나간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다른 CJ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데 중점을 둔다. CJ 사업장 별로 만들어진 ‘안전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크로스 점검도 받고 있다.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달 내에 개선하고, 피드백을 통해 이를 다시 사업장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육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법정교육 외에 매일 작업 시작 전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설비의 사용 및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신규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별도로 내어 안전교육만을 실시한다. 이때에는 현장실습, 위험요인도출, 토론 및 발표, 해법제시까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경우의 수를 정해놓고, 그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추구

최근 안전관리의 트렌드는 ‘기술의 안전’에서 ‘감성의 안전’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이미 산업 현장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안세천 공장장은 향후 ‘사람에 대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를 보다 중요시할 계획이다. 또, 설비와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휴먼에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100% 안전한 환경 속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잠재된 위험 속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의 방침이 안전에 맞춰졌다면, 근로자들도 안전마인드를 작업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의 목표는 일단 7배수 달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여러 사업장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 목표다. 안세천 공장장의 경영마인드가 지속되는 한 이들의 목표는 곧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의 앞으로의 모습이 정말 기대된다. ☺